

“개발 리드타임 최대 90% 단축, 이제 우리 팀은 코드 작성이 아닌 '설계'와 '감독'에 집중합니다.”

- 메타플라이어 자율형 마케팅 에이전트 도입 사례 -

Metaflyer



회사 소개

메타플라이어는 CRM과 마케팅 자동화를 결합한 올인원 플랫폼으로, Agentic AI 기반의 자율형 마케터 서비스 제공



도입 배경

AI 생성 코드 품질 검증 및 보안 가드레일 통합 필요, 증가하는 개발 수요와 운영 복잡성 해결



도입 효과

- 개발 리드타임 최대 90% 단축 (2~5일 → 1시간 이내)
- 자동 버그 등록 및 Slack ChatOps 기반 실시간 운영 체계 구축

메타플라이어(Metaflyer)는 CRM과 마케팅 자동화를 결합한 올인원 플랫폼으로,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캠페인을 실행합니다. 최근 'Agentic AI(자율형 AI 마케터)'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증가하는 개발 수요와 운영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AI DevOps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AI DevOps 솔루션 도입을 통해 메타플라이어는 AI가 코드를 생성하고 다른 AI가 교차 검증하는 자동화된 개발 루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슈 발생부터 배포까지의 리드타임이 기존 2~5일에서 1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Slack ChatOps 기반의 실시간 운영 체계를 통해 영업·디자인·개발 팀 전반의 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도입 전

개발은 빠르게 늘었는데,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 이슈 하나 처리하는 데 꼬박 2~5일이 걸렸습니다

이슈가 생기면 수동으로 버그를 등록하고, 코드를 수정한 뒤 MR을 올리는 데까지 2~5일. 데이터가 시스템 사이에서 단절되고, 반복 수작업이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마케팅 플랫폼의 심장인 피드백 루프가 막혀있었던 셈입니다.

| AI가 코드를 짜도, 검증은 여전히 사람이 했어요

Agentic AI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AI가 코드를 생성하는 빈도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의 품질을 확인하고, 보안 가드레일을 손으로 붙이는 건 개발자 몫이었습니다. 속도를 높이려다 오히려 검증 부담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 영업·디자인·개발, 세 팀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객 상담 중 기술 이슈가 생겨도 영업팀은 개발 진행 상황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스펙 문서를 공들여 작성해도 코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도가 달라졌습니다. 팀이 많아질수록 소통 비용은 쌓였고, 그 시간은 고스란히 제품 개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입 후

AI가 짜고 AI가 검증하는, 완전한 자동화 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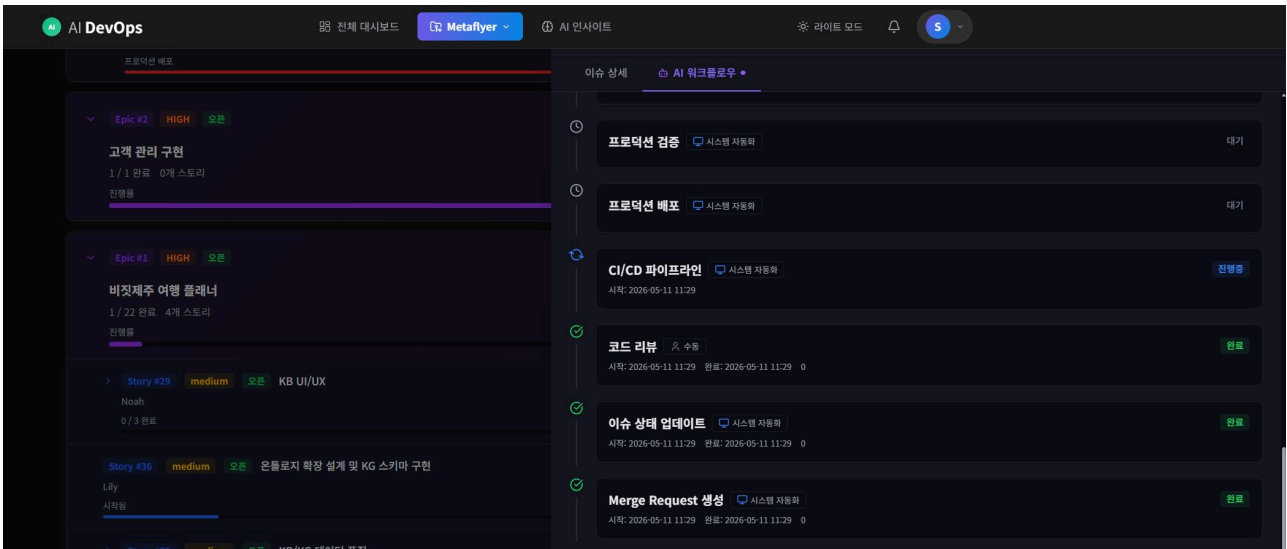
| 개발 리드타임 2~5일 → 1시간 이내, 최대 90% 단축

가장 큰 변화는 **개발 속도**입니다. 기존에 2~5일 걸리던 '이슈 분석 → 코드 수정 → MR' 흐름이 이제는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런타임 에러는 자동으로 이슈로 전환되어 Slack 알림이 오고, AI가 코드를 생성하면 다른 AI가 즉시 교차 검증하는 자동화 루프가 작동합니다. 팀원들은 단순 코드 작성이 아닌 'Agentic Engineering' — 더 고차원적인 설계와 감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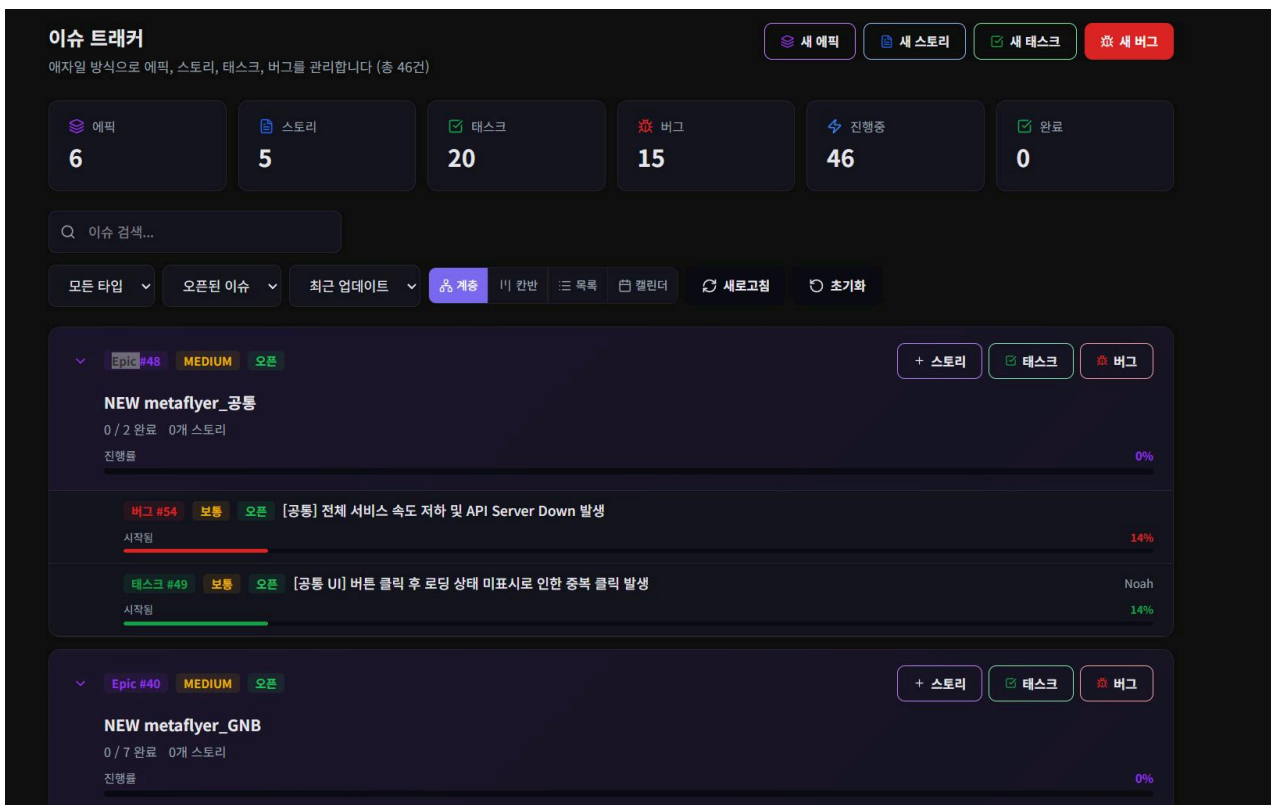
🗣 심영석 (영업이사)

"기존에 2~5일 걸리던 흐름이 1시간 이내로 줄었습니다.

AI가 짠 코드를 다른 AI가 리뷰하는 교차 리뷰 구조 덕분에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았어요."



▲ ICE-AI DevOps를 활용하여 구축한 워크플로우



▲ 에픽리스트

이슈 상세 시 워크플로우

태스크 보통 오른

임베딩 모델 추가 및 교체

프로젝트	Metaflyer	저장소	선택하세요
담당자	Noah (Developer)	스프린트	스프린트 없음
마일스톤	마일스톤 선택	시작일	YYYY.MM.DD
마감일	YYYY.MM.DD	소속 영역	비즈니스 여행 플래너
소속 스토리	없음	예상 시간	-
소요 시간	-	남은 시간	-
실행 순서	0		
라벨	라벨 입력 (Enter 또는)		

선행 태스크 + 추가

선행 태스크 없음

후행 태스크

후행 태스크 없음

설명 (마크다운 지원)

```

2026.05.07
• Google/gemma-4-26B-A4B-it 추가

2026.05.11
• Google/gemma-4-26B-A4B-it 제거
• BAAI/bge-m3 추가
• [Frontend] 임베딩 모델 교체(변경) 시 강제 화면이동(문서/데이터 탭) 문제 해결
  
```

▲ Task 관리

미팅 중에도 배포 승인이 됩니다

외부 미팅 중에도 Slack 모바일로 배포 승인을 처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경고를 확인합니다.
/devops Bot 커맨드 하나면 프로젝트 리스크 요약이 바로 옵니다. 고객 상담 중 터진 기술 이슈를 개발팀에 실시간 공유하고, 수정 진행 상황도 Slack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 신뢰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DevOps Bot 앱 오후 2:05

모니터링 경고

응답 시간 임계치 초과
응답 시간이(가) 3235ms로 임계치 2000ms를 넘었습니다.
전체 평균 응답 시간: 2200ms

AI 분석 요청


DevOps Bot 앱 오후 5:07

 **이슈 등록**

KB Pipeline 모델 선택
유형: task | 우선순위: medium
담당자: Lily | 등록자: Lily

DevOps: <https://devops.ice.i-on.net/manager/issue/view/14-9dqpr0zy>
Frontend: <http://gitlab.ice.i-on.net/mf/metaflyer/frontend/-/issues/55>


1개의 댓글 17시간 전

▲ Slack ChatOps 를 활용하여 이슈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Slack을 통해 알림

디자인 의도를 자연어로, AI가 즉시 코드로

디자이너도 이제 Slack에 자연어로 수정 의도를 씁니다. AI는 명확도를 판단해 부족한 부분을 되묻고, 즉시 수정안을 만들어냅니다. 스펙 문서를 따로 쓸 필요도, 의도가 왜곡될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 고지원 (디자이너)

"예전에는 상세한 스펙 문서를 작성해도 개발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은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바로 반영해줍니다. 디자이너가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어요."

이런 팀이라면,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개발 품질 체계를 잡아야 하는 조직, 소수 개발자가 고품질 코드를 빠르게 배포해야 하는 환경, 영업·디자인·개발 간 협업 마찰을 줄이고 싶은 팀이라면 AI DevOps 솔루션을 추천드립니다.

🗨 심영석 (영업이사)

"단순히 개발 도구를 하나 더 들인다기보다, 영업과 마케팅 현장의 목소리가 제품에 즉시 반영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작업 시간 단축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 요구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한 눈에 보는 ICE-AI DevOps 도입 전후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개발 리드타임	하루 이상 (2~5일)	1시간 이내
코드 검증	개발자가 직접 검토	AI 교차 리뷰 자동화
버그 대응	수동 등록 후 추적	런타임 에러 → 자동 이슈 전환 + Slack
팀 간 소통	비동기/지연 빈번	ChatOps 실시간 확인·승인
디자인 전달	스펙 문서 → 왜곡 발생	자연어 입력 → AI 즉시 반영